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
현대 음악교수법 연구 동향 분석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나 영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
현대 음악교수법 연구 동향 분석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나영

인 준 서

이나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2017년의 현대 음악 교수법 연구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음악교수법 연구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학술정보검색사이트 RISS에서 2006~2017년까지 발표된 현대 음악교수법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교수법별 연구 내용의 동향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별 분석 결과, 2009년에 이루어진 교수법 연구가 22편(15.2%)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연구 대상별 분석 결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편(43.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3편(28.7%)으로 대체로 어린나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약 7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를 포함한 양적연구가 60편(41.4%)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지도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연구가 36편(24.8%)으로 양적연구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교육심리를 주제로 한 연구가 58편(4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주제들은 대체로 고르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 결과, 달크로즈 교수법 논문이 71편(49.0%)으로 다른 교수법 연구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코다이 교수법 논문은 7편으로 전체의 5%로 적었다.

현대 음악교수법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의 내용이 한정적이다. 시대가 변화할수록 개발·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들은 특정 음악교수법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연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음악교수법을 위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대 음악교수법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교수법이 연구되어지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음악교육 연구의 종류	4
2. 현대 음악교수법	8
3. 선행연구 고찰	15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 대상	19
2. 연구 방법	20
3. 자료 분석	23
IV. 연구 분석 및 결과	24
1. 발행연도별 분석	24
2. 연구 대상별 분석	25
3. 연구 방법별 분석	26
4. 연구 주제별 분석	27
5.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 결과	31

V. 결론 및 제언 37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I-1> 분석 준거	20
<표 III-2> 연구 방법별 분석 기준	21
<표 III-3> 연구 주제별 분석 기준	22
<표 III-4>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 기준	23
<표 IV-1> 발행연도별 분석 결과	24
<표 IV-2> 연구 대상별 분석 결과	25
<표 IV-3>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	26
<표 IV-4>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27
<표 IV-5> 교수-학습 방법 분석 결과	28
<표 IV-6> 교육심리 분석 결과	29
<표 IV-7> 교육개발 및 내용 분석 결과	29
<표 IV-8> 현황연구 분석 결과	30
<표 IV-9> 이론적 고찰 분석 결과	30
<표 IV-10> 교수법별 논문 동향	31
<표 IV-11> 달크로즈 교수법 연구 내용 분석 결과	32
<표 IV-12> 유리드믹스 대상별 분석 결과	33
<표 IV-13> 코다이 교수법 연구 내용 분석 결과	33
<표 IV-14> 오르프 교수법 연구 내용 분석 결과	34
<표 IV-15> 고든 음악학습이론 연구 내용 분석 결과	35
<표 IV-16> 음악적성 영역 대상별 분석 결과	35
<표 IV-17> 음악적성검사 분석 결과	3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음악교육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은 중요하다. 이러한 음악교육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교수법이 필요하다.

자연주의 교육사상가 루소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각에 의한 “구체적 경험”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루소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복잡한 음악은 교육용 음악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음악 수업은 어린이의 나이를 고려하여 단순하고 소박한 선율로 이루어진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소의 자연주의 이론은 연령별로 나타나는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 경험과 활동을 구성하는 ‘음악교수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²⁾

코다이는 “모든 사람을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음악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궁극의 목표”³⁾라고 믿었으며,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적으로 적합한 교재와 새로운 지도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음악을 지도하는 원리를 발견·실천함으로써 교육철학을 정립하고, 실현하고자 하였다.⁴⁾ 이와 같이 음악 교수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학자들의 주장은 음악 교수법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 당위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음악교수법을 통해 인간의 정서적·신체적 향상을 도와주고, 영

1) 민경훈 외 11명(2013). **음악교육학 총론(2판)**. 서울 : 학지사. p.59.

2) 민경훈 외 11명(2013). 상계서. pp.59-60.

3)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 p.148.

4) 이홍수(1990). 상계서. pp.148-149.

아부터 성인까지 음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기 때문에 음악교수법은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다. 오늘날 음악교육에서 많은 형태와 방법으로 사용, 연구되고 있지만 음악교육 연구에 있어서 음악교수법의 연구는 더욱 더 발전되고,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문헌에서는 “음악수업을 위해서는 교수방법이 꼭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명백한 음악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각 교수법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교수 스타일에 맞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⁵⁾ 이처럼 학문적인 교과만이 아닌 음악 수업에서는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음악에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음악 교수법 연구는 유아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의 음악교수법과 관련된 연구동향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악교수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음악교수법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음악교수법이 어떻게 활용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2017년의 현대 음악교수법 연구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음악교수법 연구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5) Lois Chosky, Robert M.Abramson, Avon E.Gillespie, David Woods, Frank York(2018). **현대의 음악교수법**. 오지향 외 10명. 파주 : 교육과학사. p.12.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 음악교수법 관련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의 현대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 경향 및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학술지 논문의 음악교수법 발행연도별 분포도는 어떠한가?

둘째, 학술지 논문의 음악교수법 연구 대상별 분포도는 어떠한가?

셋째, 학술지 논문의 음악교수법 연구 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학술지 논문의 음악교수법 연구의 주제는 어떠한가?

다섯째, 학술지 논문의 음악교수법별 연구 내용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한 논문들은 국내학술정보검색사이트(RISS) 검색으로만 수집하였으므로 누락된 논문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논문의 분류는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분류하였기에 논문의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넷째, 민경훈(2013)⁶⁾의 음악교수법 내용을 토대로 달크로즈 교수법, 코다이 교수법, 오르프 교수법, 고든 음악 학습 이론을 현대 음악교수법으로 한정하여 연구 하였다.

다섯째, ‘음악 치료’에 관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6) 민경훈 외 11명(2013). 전계서. p.208.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 연구의 종류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한다.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변인 혹은 특성들 간의 관계를 요약·기술하거나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량적 지수를 사용하며, 주로 통제, 통계치, 측정, 실험에 의존한다.”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현상학·해석학적 논리에 기초를 두며 통제된 상황이 아닌 자연 상황에서 연구가 행해진다. 결과보고서 또한 통계적 분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언어적 묘사 혹은 마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다.”⁷⁾로 설명할 수 있다.

음악교육 연구는 양적·질적 연구 중 어느 형태라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 등 특성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가. 음악교육에서 양적 연구

양적 연구를 지향하는 교육연구자들은 “교육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척도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양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현상을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⁸⁾

양적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에 따라 현재 상태나 상황을 설명·묘사·조사하여주는 조사연구, 두 개 이상의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상관연

7) 김석우, 최태진(200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pp.21-22.

8) 김석우, 최태진(2007). 상계서. p.22.

구, 그리고 변수들을 조작·통제하여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실험연구”로 나누어진다.

조사연구는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대상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직접 대면하는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조사연구는 음악교육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 “실제 음악교육에서 실행된 연구들을 보면 음악교육전공 교육대학원생들의 교과교육과정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학생들의 음악교과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⁹⁾

상관연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변인들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변인이 서로 관련 있게 변화할 때에 이들 간에는 상관이 있다고 말한다. “음악수업시수와 아이들의 폭력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통계상 유의미한 상관결과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상관연구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¹⁰⁾

실험연구는 실험방법을 사용하며, “처치, 환경,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 혹은 통제하여 연구대상이나 물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이다.”¹¹⁾ 이 연구의 실험자는 환경에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방식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일으킨다. 협동학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것이 실험연구의 전형적인 예이다.¹²⁾

9) 최진호(2010).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공학. 12. 205-220. p.205.

10) 최진호(2010). 상계서. p.206.

11) 성태제(2010).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p.191.

기술연구를 포함한 조사연구, 상관연구, 실험연구는 양적 연구를 연구 방법론적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류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연구형태를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변화·발전시킬 수 있다.

나. 음악교육에서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20세기 후반에 인류학자, 사회학자 등에 의하여 주도된 여러 연구유형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나 그 의미는 우리 인간에 의하여 부여되고 구성된다는 구성주의 교육에 철학적 기초”를 두었다.¹³⁾

음악수업에서 새로운 음악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평가·파악하는 연구를 하고자 할 때, 학생 개인차에 따른 음악적 aptitude, 학생의 창작학습 과정, 학습과정에서의 동료학생과의 관계, 새로운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경험을 밝혀 줌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의 상이한 관점을 통찰하는 것이 질적 연구이다.¹⁴⁾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와는 반대로 연구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두지 않고,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질적 연구는 연구결과를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인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왜곡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일반적

12) 김석우, 최태진(2007). 전계서. pp.22-25.

13) 김석우, 최태진(2007). 전계서. pp.25-26.

14) 최은식 외 9명(2014). **음악교육연구방법**. 과주 : 교육과학사. p.166.

인 상황에 연구결과들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¹⁵⁾

질적 연구방법에는 어떤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관련된 변인들의 상호역할을 탐구하는 사례연구가 있다.¹⁶⁾

근거이론 연구는 인간의 상호작용 내에 존재하는 사회 심리적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서 나아가 어떤 현상에 내재된 보다 보편적인 이론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¹⁷⁾

행위 당사자 연구는 실제 현상의 문제를 ‘실행’을 근거로 발견하고,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연구자 스스로가 실행의 참여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행위 당사자 연구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이나 원리의 발견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영역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¹⁸⁾

문화인류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문화기술지 연구는 한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을 탐구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한 집단의 일상생활 속에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며 얻게 되는 그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과 해석에 기반을 둔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인간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길으로 드러난 특정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구조 원리, 그 문화를 탄생시킨 사회적 환경을 연구 대상 집단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¹⁹⁾

현재 한국의 음악에 관계된 학위논문이나 학술연구논문들의 대다수가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에서 보편적인 연구주제인 교수-학

15) 최진호(2010). 전개서. p.207.

16) 최은식 외 9명(2014). 전개서. p.170.

17) 최은식 외 9명(2014). 전개서. pp.174-175.

18) 최은식 외 9명(2014). 전개서. pp.177-179.

19) 최은식 외 9명(2014). 전개서. pp.180-181.

습모형개발, 교재연구개발 등이 있다. 이는 문헌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따로 영역을 추가하여 개발연구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용되는 문헌연구의 방식이 숫자보다는 글을 사용한다는 점, “가치중립적 측면에서 정해진 연구절차와 방법을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근거한다는 점, 특별하게 정해진 연구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의 특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²⁰⁾

2. 현대 음악교수법

가. 달크로즈의 음악교수법

에밀 자크-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는 스위스 태생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가로 명성을 떨쳤다. 제네바 콘서바토리에서 화성학과 솔페이즈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음악이론과 실제 연주를 연관 짓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리듬 활동(rhythmic gymnastics)시스템”을 발전 시키고자 하였다.²¹⁾

달크로즈는 매우 뛰어난 음악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들, 즉 음악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깊고 신비로운 것, 바이브레이션과 감각의 통합, 느낌과 사고의 통합, 성향과 즉흥성의 통합, 상상력과 의지력의 통합에 관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²²⁾ 이런 모든 능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운동 감각적

20) 최진호(2010). 전계서. p.212.

21)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음악교육의 기초 4판**. 파주 : 교육과학사. p.203

22) Lois Chosky, Robert M.Abramson, Avon E.Gillespie, David Woods, Frank York(2018). 전계서. p.66.

지각”²³⁾이라고 하며 이를 훈련시키는 것을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목적이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달크로즈 교수법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소리모방을 통하여 연계시킬 수 있게 훈련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이를 유리드믹스, 솔페이즈, 즉흥연주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을 주된 원리로 하여 교수법”을 개발하였다.²⁴⁾

먼저, “유리드믹스(Eurhythmics)는 음악적 리듬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리듬교육 방법”으로, 신체표현을 통하여 리듬을 표현하며 학습해 나가는 것이다. 유리드믹스에서는 신체를 하나의 악기로 생각하고, 신체동작을 통하여 음악을 표현함과 동시에 음악적 개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움직임 통하여 보이는 소리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음악 패턴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형식이나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리듬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달크로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리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빠르기, 아티큘레이션, 셈여림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⁵⁾

솔페즈는 절대음감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고정도법을 활용하고 있다. 손을 사용하여 음의 높낮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듣는 능력과 음형을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내청능력도 발달”시킨다. 여러 가지 시각 자료와 교육 기구를 사용하며,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음악이론을 익힐 수 있는 교수법이다.²⁶⁾

즉흥연주의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토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즉흥적 음악을 창작하기 위하여 움직임과 소리를 사용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즉흥연주를 할 수 있다.

23)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상계서. p.204.

24)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전계서. p.204.

25)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전계서. p.205.

26)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전계서. p.206.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기, 박수치기, 노래하기, 타악기 연습하기 등을 통해 수업에서 배운 아이디어와 음악을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유리드믹스와 솔페이즈에 즉흥연주가 부가될 때, 음악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종합이 가능해지고 소리를 통하여 아이디어와 느낌을 표현하는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²⁷⁾

나. 코다이의 음악교수법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가인 졸탄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는 “인간이 글을 읽고 쓰듯이 음악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음악을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 교수법을 개발”하였다.²⁸⁾ 이 교수법은 코다이가 직접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감과 지도 아래 헝가리의 학교에서 발전되었다. 코다이 교수법의 목표, 철학 및 원리는 그의 아이디어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교수 방법은 다양한 나라에서 활용 되어지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그가 수정 · 보완하여 발전 시킨 것이다.

코다이 교수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지도법은 이동계명창법, 손기호, 리듬음절 등이다. 코다이 교육에서 독보와 기보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은 이 세 가지 지도법이다.

이동계명창법은 모든 장음계에서는 ‘도’ 음이 으뜸음(keynote) 또는 중심음(tonal center)이 되고 모든 단음계에서는 ‘라’ 음이 으뜸음 또는 중심음이 되는 계이름 체계를 말한다. 이동계명창법은 조성음악 안에서 독립적인 음이 아

27) Lois Chosky, Robert M.Abramson, Avon E.Gillespie, David Woods, Frank York(2018). 전게서. p.115.

28)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전게서. p.208.

나라 음간의 관계와 기능에 초점을 두어 청각적인 훈련을 하는 방법이다. 계명을 한 번 익히고 나면, ‘도’에서 ‘솔’까지의 음정은 어떤 조에서든지 쉽게 ‘완전5도’를 떠올리게 되고, ‘솔’에서 ‘미’까지의 음정은 ‘단3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동요, 민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양 예술음악들은 조성음악이므로 이동계명창법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것이 좋다.

계이름 창법이 선율의 기억에 도움을 준다면, 계이름과 함께 손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그 선율의 기억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 줄 것이다. 손기호는 1870년 영국의 존 커웬(John Curwen)이 처음 만든 것인데, 코다이가 헝가리 학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손기호는 허리에서 머리까지 사이에서 사용한다. 미국의 일부 교사들이 ‘솔-미’ 음정 단계의 수업에서 손기호 범위를 너무 넓게 제시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음들이 있는 노래를 표현할 경우 손기호를 다시 배워야 하게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선율의 패턴을 익힐 때 양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코다이 교수법에서 리듬학습은 다양한 리듬을 표현하는 음절 이름을 사용하여 지도한다. 이 리듬음절은 1800년대에 자끄 쉬베(Jacques Chene)가 만든 것을 활용한 것인데, 이 방법은 프랑스의 콘서바토리에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리듬음절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리듬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음길이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리듬음절을 사용하여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음길이 이름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리듬음절은 노래에 나오는 선율 패턴과 프레이즈를 활용하여 가르친다. 이는 리듬음절을 수학적 길이가 아니라, 소리의 상대적인 관계성으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리듬음절로 리듬을 표현할 때 한 음이 다음 음까지 지속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ta(타)는 4분 음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2/4박자에서 ta는 한 박자의 길이를 충분히 소리

내어야 한다. 학생들이 이것을 실제적인 ‘음길이’로 배우지 않고, 단지 ‘이름’으로만 배운다면, 8분 음표 뒤에 8분 쉼표가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리듬패턴을 음정에 맞춰 노래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일은 드물 것이다.²⁹⁾

코다이 교수법은 헝가리의 160여 개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음악교육자들이 코다이 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배우기 위해 헝가리를 찾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음악 교사 연수, 음악 교과서, 다양한 문헌 등에서 이 교수법을 소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손기호를 소개하며, 민요를 중시하는 철학이나 실제 지도법 등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³⁰⁾

다. 오르프의 음악교수법

칼 오르프(Carl Orff, 1895~1982)는 독일의 작곡가이며 음악 교육자로서 Dalcroze의 Eurhythmics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언어와 신체동작을 음악적으로 적용하고, “언어, 신체동작, 음악의 통합을 하나의 음악적 카테고리로 정하고 이것을 ‘원초적 음악(Elemental Music)’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원초적 음악에 의한 학습지도 체계를 완성하여 ‘오르프 숄베르크(Orff-Schulwerk)’를 발간”하였다.³¹⁾

오르프 교수법은 “말리듬(Rhythm Speech), 노래 부르기(Singing), 신체

29) Lois Chosky, Robert M.Abramson, Avon E.Gillespie, David Woods, Frank York(2018). 전게서. pp.119-126.

30) 민경훈 외 11명(2013). 전게서. p.251.

31)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전게서. p.213.

표현(Movement), 악기연주(Instruments)의 4가지 교수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말리듬(Rhythm Speech)은 유아의 자국어에서 나온 단어, 라임, 수수께끼, 속담, 전해져 내려오는 시나 이야기 등과 같은 고유의 리듬을 기초로 익힌다. 신체로 익힌 말 리듬을 표현하거나 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무선율, 선율 악기로 전환하면서 유아의 감수성과 음악적 기술을 만들어 가는 매체”이다.

둘째, “노래 부르기(Singing)는 목소리를 통해 말 리듬과 연계하여 다양한 멜로디나 화음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자신을 정교하게 표현하면서 음악의 기초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신체표현(Movement)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오르프 교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는 신체이며, 초기 단계에서 말하기와 노래하기의 중요한 반주 악기로 신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류의 초기 문화에서 온 것이므로 ‘원초적(elemental)’이라고 불려진다.

마지막으로 “악기연주(Instruments)는 Orff 접근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민속 음악가인 Sachs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민족들이 사용하는 많은 작은 타악기와 북 종류의 악기들을 누구나 쉽게 연주하도록 교육적으로 재발견하고 발전”시켰다.³²⁾

오르프 교수법은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교육의 필음 소개되어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32) 권오선, 이옥주(2012). Orff 접근법에 의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1). 165-181. pp.167-168.

라. 고든의 음악학습이론

에드윈 고든(Edwin E. Gordon, 1927~)은 미국에서 태어난 음악심리학자, 음악교육자이다.³³⁾ 그는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의 템플대학교에서 시쇼어 연구 교수로 재직했으며 그곳에서 린드백상과 우수 교수상을 받았다. 그의 업적은 미국, 유럽과 아시아에서 출판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고든은 음악 학습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다양한 음악적성검사를 개발하였다. 고든의 기초 개념으로는 음악적성과 오디에이션이 있다.

고든은 “음악수업이 반드시 학생들의 음악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사가 반드시 수업 전에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수업시간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³⁴⁾ 음악적성이란 ‘음악의 IQ’라고 할 수 있다. 음악재능, 소질, 음악성 등 다양한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고든은 “음악적성이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 to learn music)’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어떤 사람이 음악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말한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빨리 배우고 어떤 학생은 더디게 배운다. 집중력의 차이, 연습시간의 차이 등 그 이유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의 음악적성 차이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³⁵⁾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서 오디에이션의 이해는 중요하다. 음악적 능력의 기초는 오디에이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고든의 실제적 음악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오디에이션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audiation은 ‘소리를 상상하다’라는 뜻으로, 고든이 시각적으로 ‘그림이나 영상을 상상하다’라는 단어인

33) 민경훈 외 11명(2013). 전제서. p.275.

34) 민경훈 (2017). **음악교수학습방법**. 서울 : 학지사. pp.189-192.

35) 임미영,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예스더(2010). **음악교수법**. 서울 : 학지사. p.241.

‘Imagination’과 대응되는 말로 만든 단어”이다. 사람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고 그 언어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하듯이, 음악에서 또한 듣고, 연주하고, 읽고, 쓰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음악을 듣지 않아도 그 음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오디에이션은 음악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기초 능력이다.³⁶⁾

오디에이션 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고든은 “기술 학습 순서, 음 학습 순서, 리듬 학습 순서, 패턴 학습 순서”를 사용하기를 권하였다. 고든의 음악 학습은 패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패턴은 언어에 있어서의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언어를 배우듯 음악을 학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⁷⁾

오디에이션은 연주하기, 악보읽기, 창작하기 등 모든 음악적인 활동에서 나타난다. 고든은 오디에이션이 모든 음악적 활동의 기초이며 사람마다 오디에이션하는 능력도 각기 다르다고 하였다. 오디에이션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든은 음악수업의 목표가 오디에이션 능력의 향상이라고 생각한다.³⁸⁾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음악교수법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교육 연구동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성인지(2007)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유아 음악 교육에 관련한

36) 임미영,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2010). 상계서. p.245.

37) 임미영,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2010). 전계서. pp.245-247.

38) 민경훈(2017). 전계서. pp.189~192.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들 중 유아 음악교수법에 관한 논문 133편을 분석하였다. 크게 논문의 년도 및 학교·학과별, 논문의 연구형식 및 특정 교수법에 대한 분석, 연구 형식에 따른 음악활동에 대한 분석, 연구 형식에 따른 음악개념에 대한 분석, 기타 접근법에 관한 분석으로 구별하였다. 논문의 연구형식 및 특정 교수법에 대한 분석은 연구형식, 연구형식 및 특정 교수법(5가지)로 구별하였고, 특정 교수법은 오르프, 달크로즈, 코다이, 두 개 이상의 특정 음악교수법의 통합 및 비교, 이외 특정 음악교수법으로 나누었다. 연구형식에 따른 음악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동작(신체활동), 가창(노래 부르기), 감상(듣기활동), 악기연주, 통합 활동으로 구별하였다. 연구 형식에 따른 음악개념을 리듬, 통합적 접근, 음악개념 관련 합계, 음악개념 외, 전체합계를 통하여 백분율을 냈고, 기타 접근법에 관한 분석에서는 놀이, 국악 및 기타로 구별하였다.³⁹⁾

이정아(2013)은 국내 학술지 논문 중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음악교육에 관련한 연구논문 584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연구대상, 연구 영역, 연구 방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별하였다. 그 중 연구 대상은 크게 사람과 문헌으로 나누었다. 사람은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특수아, 교사, 교사와 학생, 전문가, 성인으로 10가지로 구별하였고, 문헌은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와 관련한 교재, 또는 다양한 기준으로 총 9가지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연구영역은 음악교육역사를 포함하여 총 13가지로 분류하였고,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 병행연구, 문헌연구, 개발연구, 기타로 구별하여 연구하였다.⁴⁰⁾

음악 교육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음악학습이론을 발표한 고든에 대해서 홍승연(2016)은 고든의 음악학습이론과 관련한 논문을 학위논문

39) 성인지(2007). 유아 음악교수법의 연구 동향 분석. 종합예술과 음악 학회지. 2(1). 123-144.

40) 이정아(2013). 국내 학술지의 음악교육 연구 동향 분석 : 2006년-2012년 연구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과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발행연도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로 지정하여 총 10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발행연도별,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수행으로 구별하였다. 연구영역은 이론관련, 수업적용, 기타로 구별하였고, 연구 주제는 음악학습이론, 오디에이션, 기타로 구별하였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기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수행은 단독연구 공동연구 및 연구비 지원으로 구별하였다.⁴¹⁾

기초 음악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주변 환경의 음악적 요소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음악활동을 제시한 오르프에 대해서 황찬양(2017)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 논문 중 오르프 교수법과 관련된 연구논문 204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크게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동향 분류와 유아음악교육 오르프 교수법 관련 연구논문의 분류하였고,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동향은 연구 연도별 분류 기준, 연구 대상별 분류 기준, 연구 방법별 분류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유아음악교육 오르프 교수법 관련 연구논문의 분류 또한 연구연도별 분류 기준, 연구대상별 분류 기준, 연구 방법별 분류 기준에 프로그램 중심활동별 분류 기준이 추가되어 구별하였다.⁴²⁾

박민경(2017)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에 등재된 음악교육 학술논문 중 음악교육 관련 논문을 조사하여 총 725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크게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에서는 이정아(2013)와 같이 먼저 사람과 문헌으로 분류한 후에, 사람은 다시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등학생, 대학생, 특수아,

41) 홍승연(2016). 고든 음악학습이론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26. 55-74.

42) 황찬양(2017). 유아음악교육 관련 오르프 교수법 연구동향 분석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교사, 교사와 학생, 전문가, 성인, 학생과 학부모로 분류하였고, 문헌은 다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별하여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선택, 초중등, 예술고, 대학으로 구별하고, 교과서는 초등, 중등, 고등, 초중등, 교사용 지도서로 구별하였다. 기타는 음악교육연구, 음악교육학이론, 교과서 외 교재, 교수 매체, 평가도구, 교육프로그램/프로그램 개발, 교육정책, 그 외로 8가지로 구별하였다. 연구영역에서는 이정아(2013)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 병행 연구, 개발연구, 기타로 분류되고 그중 양적 연구는 조사연구, 실험연구, 상관연구로 구별되었다. 개발연구는 지도안, 프로그램과 평가도구, 검사도구로 구별하였다.⁴³⁾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분석 기준을 알아본 결과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 동향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영유아부터 성인, 특수 교육까지 연구 주제에 따른 논문 분석과,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을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43) 박민경(2017). 국내 학술지 음악교육연구 동향 분석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최근의 현대 음악교수법에 관한 학술지 논문들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 대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달크로즈 교수법’, ‘코다이 교수법’, ‘오르프 교수법’, ‘고든 음악학습이론’, ‘Dalcroze’, Kodály’, ‘Orff’, ‘Gordon’,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 ‘음악학습이론’이었으며, 띄어쓰기에 따라 다르게 검색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검색하였다.

국내학술정보검색사이트(RISS)에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 음악교수법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304편이었으며, 그 중 본 연구의 논문 선정 기준을 토대로 하여 총 145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논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음악교수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둘째, 논문명만으로 대상을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문초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현대 음악교수법에 부합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논문초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현대 음악교수법의 내용이 있지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내용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교수법별 연구 내용으로 연구하였다.

박민경(2017), 이영애(2009), 정이레(2018), 현경실(2018), 황찬양(2017)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분석 준거로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 준거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분석 준거

영역	내용
발행연도	2006~2017년 국내 학술지 논문
연구 대상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특수, 기타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개발연구
연구 주제	교수-학습 방법, 교육심리, 교육개발 및 내용, 현황연구, 이론적 고찰
교수법별 연구 내용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가. 발행연도

발행연도별 분류기준은 연구대상에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다.

나.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특수,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고등학생도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음악교수법 관련 논문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 분석 기준은 박민경⁴⁴⁾, 정이레⁴⁵⁾, 황찬양⁴⁶⁾의 연구의 유형별 분류를 참조하여 5개의 분류기준으로 나누고 세부연구방법과 세부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한 혼합연구, 문헌연구, 개발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별 분석 기준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방법별 분석 기준

연구방법	세부연구방법	세부 내용
양적 연구	실험연구	어떤 요인을 변화시키거나 조작한 결과로 생기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조사연구	특별한 주제나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여 사실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
	상관연구	현재의 현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질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관찰하고 기술한 연구
혼합연구	양적·질적 혼합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한 연구
문헌연구	문헌고찰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물을 검토한 연구
개발연구	지도안·프로그램개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한 연구

44) 박민경(2017). 전게서.

45) 정이레(2018). 유아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유아음악교육 연구동향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46) 황찬양(2017). 전게서.

라.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의 연구 주제의 분석 기준은 이영애⁴⁷⁾, 현경실⁴⁸⁾의 연구의 주제별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분류 기준에서 심리 영역과 교수-학습 방법 영역을 수정하여 영역 기준을 확대하고, 수업모형·교수법 제시 영역은 교육개발 및 내용 영역에 추가하여 넓은 범위의 연구의 주제를 알아보고자 <표 III-3>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다.

<표 III-3> 연구 주제별 분석 기준

연구 주제	분석기준	
교수-학습 방법	가창, 기악, 감상, 음악요소, 신체표현, 통합적 음악교육	
교육심리	감성	감성
	적성	음악적성, 음악적 능력, 표현력, 음악적 태도
	인성	사회성, 인성, 스트레스, 정서, 우울증
	창의성, 효능감, 특수	
교육개발 및 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수업모형 제시, 교수법 제시	
현황연구	실태 및 현황, 인식조사, 사례연구	
이론적 고찰	연구 동향, 문헌고찰	

마. 교수법별 연구 내용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 기준은 <표 III-4>와 같다.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류 기준은 달크로즈 연구 내용 분석 기준은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문헌에서의 교수-학습모형의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7) 이영애(2009). 전게서.

48) 현경실(2018). 전게서.

<표 III-4>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 기준

분류	주요 내용	
교수법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 ⁴⁹⁾
	코다이	이동계명창법, 리듬음절, 손기호 ⁵⁰⁾
	오르프	탈리듬, 노래하기, 신체표현, 악기연주 ⁵¹⁾
	고든	음악학습이론, 음악적성 ⁵²⁾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Excel을 이용하였다. 발행연도별, 연구 대상별, 연구 방법별, 연구 주제별, 교수법별 연구 내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고, 분석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 1편을 1로 계산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49)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전계서. pp.207-208.

50) Lois Chosky, Robert M. Abramson, Avon E. Gillespie, David Woods, Frank York(2018). 전계서. pp.123-126.

51) 권오선, 이옥주(2012). 전계서. pp. 167-168.

52) 임미영,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2010). 전계서. pp.241-254.

IV. 연구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영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현대 음악교수법에 관련한 학술지 논문은 총 145편이다. 이 연구들을 분석하여 최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의 현대 음악교수법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발행연도별 분석

연구 연도별 분석 결과를 보면, 음악교수법에 대한 논문 중 2009년에 연구된 논문이 22편(15.2%)으로 가장 많았다. 발행연도에 따른 논문의 수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발행연도별 분석 결과

발행연도	논문 수(편)	백분율(%)
2006	9	6.2
2007	17	11.7
2008	15	10.3
2009	22	15.2
2010	14	9.7
2011	6	4.1
2012	14	9.7
2013	9	6.2
2014	7	4.8
2015	12	8.3
2016	13	9.0
2017	7	4.8
합계	145	100.0

2. 연구 대상별 분석

연구대상별 논문 수 분석 결과를 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 50편(34.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 33편(22.8%)으로 대체로 어린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약 57% 나타났다. 현대 음악교수법 연구에서는 어린 나이의 연구,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 그로 인해 유아 교육에서의 음악교수법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이 없는 논문의 수가 30편으로 약 20%의 비율을 나타냄으로 특정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연구도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대상별 논문의 수와 비율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연구 대상별 분석 결과

대상	논문 수(편)	백분율(%)
영유아	50	34.5
초등학생	33	22.8
중학생	3	2.1
성인	12	8.3
특수	9	6.2
기타	8	5.5
대상 없음	30	20.7
합계	145	100.0

* 대상 없음 : 특정 연구 대상이 지정되지 않음.

3. 연구 방법별 분석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를 보면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가 속한 양적 연구가 총 60편(41.4%), 그 중에서 실험연구가 총 33편(22.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도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연구가 총 36편(24.8%)로 많은 비율을 보인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는 총 4편(2.8%)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연구 방법별 분석 결과

연구방법	세부연구방법	논문 수(편)		백분율(%)	
양적 연구	실험연구	33	60	22.1	41.4
	조사연구	17		11.7	
	상관연구	11		7.6	
질적 연구	질적 연구	18		12.4	
혼합연구	양적·질적 혼합	4		2.8	
문헌연구	문헌고찰	27		18.6	
개발연구	지도안· 프로그램개발	36		24.8	
합계		145		100.0	

4. 연구 주제별 분석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심리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58편 (40.0%)으로 가장 많았다. 교수-학습 방법을 주제로 한 논문이 35편(24.1%)으로 교육심리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교수-학습 방법을 주제로 한 연구는 실제 지도하지 않고, 지도 방안만을 제시한 논문이 대부분이다. 이론적 고찰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비율도 25편(17.2%)으로 대체로 많은 비율이 나타났다.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영역	논문 수(편)	백분율(%)
교수-학습 방법	35	24.1
교육심리	58	40.0
교육개발 및 내용	18	12.4
현황연구	9	6.2
이론적 고찰	25	17.2
합계	145	100.0

연구주제의 5가지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는 총 35편으로 교육심리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창, 기악, 감상, 음악요소, 신체표현, 통합적 음악교육의 6가지 세부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 기악 영역이 12편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다.

통합적 음악교육은 음악 활동 내에서의 통합이다. 통합된 연구 논문은 10편으로 그 중 5편은 오르프 교수법 연구에서 나타났다. 주로 기악 영역과 신체표현 영역이 함께 나타났다. 교수-학습 방법의 주요 분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교수-학습 방법 분석 결과

세부항목		논문 수(편)	백분율(%)
교수-학습 방법	가창	7	20.0
	기악	12	34.3
	감상	1	2.9
	음악요소	2	5.7
	신체표현	3	8.6
	통합적 음악교육	10	28.6
합계		35	100.0

나. 교육심리

교육심리 분석 결과는 적성 영역이 26편(44.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적성 영역은 음악적성, 음악적 능력, 표현력, 음악적 태도 등을 적성에 포함시켰다. 적성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 중 고든의 음악학습이론 관련 논문이 13편으로 50%에 해당된다. 고든이 연구한 음악적성검사에 관련한 논문의 수가 많기에 교육심리 영역에서의 적성 영역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성, 인성, 스트레스, 정서, 우울증을 포함한 인성 영역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현장에서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많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심리의 분석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교육심리 분석 결과

세부항목		논문 수(편)	백분율(%)
교육심리	감성	2	3.4
	적성	26	44.8
	인성	13	22.4
	창의성	9	15.5
	효능감	1	1.7
	특수	7	12.1
합계		58	100.0

다. 교육개발 및 내용

교육개발 및 내용의 분석 결과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영역이 14편으로 77.8%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영역에서 개발 후 적용까지 한 연구는 5편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개발 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개발까지만 이루어진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교육개발 및 내용의 분석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교육개발 및 내용 분석 결과

세부항목		논문 수(편)	백분율(%)
교육개발 및 내용	교수법 제시	1	5.6
	수업모형 제시	3	16.7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4	77.8
합계		18	100.0

라. 현황연구

현황연구 분석 결과는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5편(55.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식조사를 한 연구가 3편으로 33.3%를 나타냈다. 현황연구에서는 현대 음악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 현황연구 분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현황연구 분석 결과

세부항목		논문 수(편)	백분율(%)
현황연구	인식조사	3	33.3
	사례연구	1	11.1
	실태 및 현황	5	55.6
합계		9	100.0

마. 이론적 고찰

이론적 고찰 분석 결과는 문헌고찰의 연구가 19편으로 76%의 많은 비율이 나타났다. 주로 문헌을 연구하여 여러 교수법의 분석과 제언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동향에 있어서는 현대 음악교수법과 관련한 조사연구가 나타났다. 이론적 고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이론적 고찰 분석 결과

세부항목		논문 수(편)	백분율(%)
이론적 고찰	연구동향	6	24.0
	문헌고찰	19	76.0
합계		25	100.0

5.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대 음악교수법 학술지 논문의 전체 논문 수는 총 145편이며, 그 중 달크로즈 교수법 학술지 논문이 71편(49.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코다이 교수법 학술지 논문이 7편(4.8%)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현대 음악교수법 학술지 논문의 전체 동향은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교수법별 논문 동향

교수법	논문 수(편)	백분율(%)
달크로즈	71	49.0
코다이	7	4.8
오르프	32	22.1
고든	30	20.7
2가지 이상의 교수법	5	3.4
총	145	100.0

가. 달크로즈 교수법 연구 내용별 분석

달크로즈 교수법 연구 내용별 분석은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활동인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의 연구동향을 볼 수 있다. 유리드믹스가 47편(66.2%)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솔페즈와 즉흥연주가 단독으로 연구되어진 논문은 각 4편, 5편 뿐이었다. 또한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를 두 가지 이상 함께 연구한 논문은 15편(21.1%)으로 유리드믹스 연구 논문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가 함께 이루어진 연구는 유리드믹스로 시작하여 즉흥연주까지 도달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에 나타났다. 예컨대, 유승지(2012)의 연구에서는 유리드믹스와 즉흥연주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연구가 나타났다.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1학기는 유리드믹스, 2학기는 즉흥연주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음악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인 언어로 활동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리듬, 선법을 신체적 움직임, 또는 타악기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이 나타났다. 달크로즈 교수법 연구 내용 분석은 다음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달크로즈 교수법 연구 내용 분석 결과

주요 내용	논문 수(편)	백분율(%)
유리드믹스+솔페즈+즉흥연주	14	19.7
유리드믹스	47	66.2
솔페즈	4	5.6
즉흥연주	5	7.0
기타(유리드믹스+즉흥연주)	1	1.4
합계	71	100.0

달크로즈 교수법의 연구 내용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유리드믹스의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23편(37.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9편(14.8%)으로 대체로 어린 나이의 연구가 32편(52.5%)으로 과반수 이상의 연구가 나타났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16.4%)으로 어린 나이의 연구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유리드믹스 대상별 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유리드믹스 대상별 분석 결과

연구 대상	논문 수(편)	백분율(%)
영유아	23	37.7
초등학생	9	14.8
중학생	2	3.3
성인	10	16.4
특수	2	3.3
기타	2	3.3
대상 없음	13	21.3
합계	61	100.0

나. 코다이 교수법 연구 내용별 분석

코다이 교수법 연구 내용별 분석을 보면 코다이에서 이동계명창법을 활용으로 하는 2편(28.6%), 이동계명창법, 손기호, 리듬음절을 함께 사용한 연구의 수가 4편(57.1%)으로 나타났다. 코다이 교수법의 주요 내용인 손기호와 리듬음절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연구는 해당 연구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 10년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나타나지 않았고, 코다이 교수법을 연구한 논문의 수는 총 7편 밖에 되지 않아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에 부족하였다. 앞으로 코다이 관련 연구가 보완·발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다이 교수법 주요 내용별 분석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코다이 교수법 주요 내용 분석 결과

주요 내용	논문 수(편)	백분율(%)
이동계명창법+손기호+리듬음절	4	57.1
이동계명창법	2	28.6
기타(코다이 이념)	1	14.3
합계	7	100.0

다. 오르프 교수법 연구 내용별 분석

오르프 교수법 연구 내용 분석을 보면 말리듬, 노래하기, 신체표현, 악기 연주를 모두 활동을 함께 연구한 논문의 수가 25편(78.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예컨대, 김혜영(2015)⁵³⁾의 연구에서는 음악표현능력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노래하기, 신체표현, 악기연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오르프 교수법 연구에서는 한 가지 활동만을 연구한 논문보다 다양한 활동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나타났다. 오르프 교수법 주요 내용별 분석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오르프 교수법 주요 내용 분석 결과

주요 내용	논문 수(편)	백분율(%)
말리듬+노래하기+신체표현+악기연주	24	75.0
악기연주	7	21.9
기타(노래하기+신체표현+악기연주)	1	3.1
합계	32	100.0

라. 고든 음악학습이론 연구 내용별 분석

고든 음악학습이론 연구 내용별 분석은 오디에이션을 포함한 음악학습이론 연구, 음악적성 연구, 음악적 창의성을 기타 영역으로 두어 총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음악학습이론 중심으로 한 논문과 음악적성을 중심으로 한 논문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음악학습이론의 영역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음악학습이론을 한 가지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고든 음악학습이론 연구 내용별 분석 결과는 <표 IV

53) 김혜영(2015). 오르프접근법의 다중표상 활동이 유아의 음악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4(2). 25-48. p.39.

-15>와 같다.

<표 IV-15> 고든 음악학습이론 연구 내용 분석 결과

주요 내용	논문 수(편)	백분율(%)
음악학습이론	15	50.0
음악적성	14	46.7
기타(음악적 창의성)	1	3.3
합계	30	100.0

음악적성은 대체로 어린 나이에 발달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으로 약 70% 나타났다. 또한 특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령을 나누어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이루어진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어린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논문 중 음악적성 영역에서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적성 영역 대상별 분석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음악적성 영역 대상별 분석 결과

대상	논문 수(편)	백분율(%)
영유아	7	50.0
초등학생	3	21.4
특수	2	14.3
기타	2	14.3
합계	14	100.0

고든의 음악학습이론 주요 내용 중 음악적성 관련한 논문은 총 14편이다. 음악적성 관련 논문은 음악적성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Gordon의 초급

음악적성검사인 PMMA 검사를 포함한 연구는 총 9편, 64.3%로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다. Gordon의 중급 음악적성검사인 IMMA는 1편뿐이었다. 대체로 어린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적성검사에서는 중급 음악적성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현경실(2004)⁵⁴이 개발한 한국음악적성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인 KMAT 검사를 포함한 연구는 총 4편으로 약 29%의 비율이 나타났다. 음악적성검사 분석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음악적성검사 분석 결과

음악적성검사	논문 수(편)	백분율(%)
KMAT	4	28.6
PMMA	9	64.3
IMMA	1	7.1
합계	14	100.0

본 연구 대상의 논문 중 교수법의 주제별 영역이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연구 내용에서 함께 연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현대 음악교수법 중 두 가지 이상의 교수법을 함께 연구한 논문의 수는 총 5편으로 적게 나타났다.

54) 현경실(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서울 : 학지사.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교육연구의 이론적인 자료와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대 음악교수법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2017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교수법별 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현대 음악교수법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에 22편의 음악교수법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9년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10편 전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대 음악교수법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2017년에는 7편(4.8%)의 연구 뿐이었다. 전통적인 음악교수법 보다는 최근에 나타나는 교수법들을 통한 연구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현대 음악교수법 연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수법 연구가 84편(57.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체로 어린 나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나, 성인과 특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적지 않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 음악교수법은 기초적인 음악요소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대체로 어린 나이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진다. 고령화시대에 맞게 노인을 위한 음악교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수법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방법별 분석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개발연구, 문헌연구로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가 60편(4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실

험연구가 33편(22.1%)으로 세부 연구 방법 중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또한 지도안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지 않은 연구도 36편으로 전체의 약 20%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연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개발’ 단계에서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연구 주제별 분석은 교수-학습 방법, 교육심리, 교육개발 및 내용, 현황연구, 이론적 고찰로 분류하였다. 대체로 교육심리를 주제로 한 연구가 56편(40.0%), 교수-학습 방법을 주제로 한 연구가 35편(24.1%)으로 많이 나타났다. 교육심리를 주제로 한 연구는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서의 주요 내용인 음악적성 영역이 포함되었기에 많이 나타났다. 한편, 연구 방법에서의 개발연구와 연구 주제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는 개발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연구이고, 교수-학습 방법은 개발되어 있거나 간단한 이론에 관련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기에 이는 수치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교육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 및 다양한 적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음에 교육심리와 관련한 음악교수법 연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수법별 연구 내용 분석은 현대 음악교수법의 전체 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수법별로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대 음악교수법 중 달크로즈 교수법의 연구가 71편(49.0%)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코다이 교수법의 연구는 7편(4.8%)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달크로즈 교수법의 연구 내용에서는 리듬을 신체로 표현하는 유리드믹스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47편(66.2%)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유리드믹스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3편(37.7%)으로 많다. 오르프 교수법의 연구는 말리듬, 노래부르기, 신체표현, 악기연주의 4가지 활동을 함께 연구한 논문의 수가

25편(78.1%)으로 대체로 함께 활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든 음악학습이론의 연구는 음악학습이론을 주제로 한 연구가 15편, 음악적성과 관련한 연구가 14편으로 두 영역의 논문 수가 비슷하였다. 달크로즈 교수법의 유리드믹스 내용은 영유아들에게도 쉽게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노인이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곳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노인을 위한 유리드믹스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대 음악교수법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달크로즈 교수법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성인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음악교수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상황과 연령이 있겠지만, 대상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지도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연구는 실제 수업에 적용하지 않은 연구도 다수 있었다. 음악 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지 않은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며 교수법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학술정보검색사이트 RISS만을 활용하였기에 RISS에서 검색되지 않아 누락된 연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현대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사회적 가치, 교육의 발전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또 다른 교수법들이 이 논문에서 사용된 4가지 교수법과 함께 적용되어지기도 한다. 교사가 음악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음악적 개념과 다양한 능력을 발

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교사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7). **음악교육의 기초 4판**. 파주 : 교육과학사.
- 권오선, 이옥주(2012). Orff 접근법에 의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1). 165-181.
- 김석우, 최태진(200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 김선의, 유선희(2009). 주제와 통합된 Dalcroze 유리드믹스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변형영유아교육연구. 3(2). 5-26.
- 김혜영(2015). 오르프접근법의 다중표상 활동이 유아의 음악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4(2). 25-48.
- 민경훈 외 11명(2013). **음악교육학 총론(2판)**. 서울 : 학지사.
- 민경훈(2017). **음악교수학습방법**. 서울 : 학지사.
- 박민경(2017). 국내 학술지 음악교육연구 동향 분석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인지(2007). 유아 음악교수법의 연구 동향 분석. 종합예술과 음악 학회지. 2(1). 123-144.
- 성태제(2010).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유승지(201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한 달크로즈 교수법의 활용 방안. 이화음악논집. 16(1). 47-82.
- 윤영배(2008). 오르프 접근법에 의한 유아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12(4). 141-165.
- 이영애(2009). 유아음악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37. 193-213.
- 이정아(2013). 국내 학술지의 음악교육 연구 동향 분석 : 2006년-2012년 연구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

-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터(2010). **음악교수법**. 서울 : 학지사.
- 정이레(2018). 유아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유아음악교육 연구동향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식 외 9명(2014). **음악교육연구방법**. 서울 : 교육과학사.
- 최진호(2010).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공학.
12. 205-220.
- 현경실(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서울 : 학지사.
- 현경실(2018). 음악교육의 심리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7(1). 147-168.
- 홍승연(2016). 고든 음악학습이론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26. 55-74.
- 황찬양(2017). 유아음악교육 관련 오르프 교수법 연구동향 분석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 Lois Chosky, Robert M.Abramson, Avon E.Gillespie, David Woods, Frank
York(2018). **현대의 음악교수법**. 오지향 외 10명. 파주 : 교육과학사.

ABSTRACT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ontemporary Music Teaching Methods Focused on Journalism.

Lee, Na You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udy of contemporary music teaching method from 2006 to 2017 focusing on the journal articles and to help present the trend and direction of the future teaching method of music teaching method.

Therefore, this research was selected as a research subject of contemporary music teaching method published from 2006 to 2017 in the domestic academic information search site RISS. The result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trends by year of publication, subject of study, research method, research subject, teaching method, and research conten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by publication year, there were 22(15.2%) most educated research methods in 2009.

Secon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50 researches o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33 studie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eneral 72% of the younger age group had the most research.

Third, analysis results by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including experimental research, research studies, and correlational studies, was the most frequent study and quantitative research next, there are 36 developmental studies.

Fourth, research result by subject, there were 58 studies on educational psychology, and other topics were mostly developed evenly.

Fifth,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contents by teaching method, there are 71 studies on the Dalcroze teaching methodology, and many studies have been done compared to other teaching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thesis of Kodaly method was 7, which was 5% of the total.

The study of contemporary music teaching method is study, but the content of the research is limited. As the times change needs to be developed and supplemented. Subsequent studies have recognized the problem should be studied for better music teaching methods. I hope that various music teaching methods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will be studied through the trend analysis of contemporary music teaching method research.